

# 임무

## 아시아내 미군

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, 국가의 정치적, 경제적, 안보 이익이 점차 태평양 지역내에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1944 년,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첫 임무를 수행한 이래, 미 8 군은 지속적으로 주둔함으로써 동맹을 지원하고 잠재적 적대세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.

준비태세는 가장 우선시 되는 요소입니다. 준비태세를 형성하는 노력선인 훈련, 동맹강화, 변혁을 추진함으로써 정전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한반도는 아직 평시상태가 아님을 인지하며 미 8 군은 상시 "Fight Tonight"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. 즉 가장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강도높은 훈련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전시 기준 이상의 장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.

임무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동맹 강화 입니다. 미 8 군은 한측과 전례 없는 수준의 적극적인 교류를 지속해 나아가고 있으며, 더불어 교훈 공유 및 강력한 파트너십을 함께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, 한미 동맹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는 한측 국민들과의 관계 구축입니다. 미 8 군 장병 및 가족은 상시 올바른 행동 및 교류를 통해 한측 국민들과의 신뢰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. 이들의 활동은 한반도 내 임무 성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. 좋은 이웃 프로그램은 전 장병, 민간 고용자 및 가족들에게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
미 8 군은 앞으로, 대부분의 전력을 두개의 주요 허브 지역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동시켜 Fight Tonight 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. 변혁은 단순히 현재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남부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. 변혁은 더욱 복잡해지는 환경 속에서, 순환배치 부대를 제공하며 새로운 능력 및 혁신적인 방법으로 전투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를 강화시킬 것입니다.